

「입양특례법」과 입양의 인권 문제

「Adoption of a special law」 and adoption of human rights issues

이 철 호

남부대학교

Lee cheol-ho

Nambu Univ.

요약

2012년 8월 입양아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주된 핵심은 입양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의 입양 여부를 가정법원이 최종 허가하도록 했다. 또 입양을 원하는 생모에게 숙려 기간을 7일간 갖도록 하고, 입양 기관은 양부모에게 아동 양육 교육을 하고, 아동 학대나 성폭력 등 범죄 경력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출산 전부터 생모의 입양 동의서와 친권포기 각서를 받아 입양을 진행시키는 과거신고제 입양의 단점을 보완하고 입양아의 출생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후 우리 사회에서는 입양아의 권리 보호와 무질서한 해외입양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영아 유기를 증가시키고 있고, 입양을 간절히 원하는 양부모들에게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정 「입양특례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 서론

한국은 OECD가입국가이고 세계 10위권이 경제대국이지만 면서도 불행하고 부끄럽게도 국외 입양인이 16만4천여명(비공식 입양까지 합하면 20만명 이상 추정)에 이르는 세계 최대 '고아 수출국'의 오명을 안고 있다. 2012년 8월 입양아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주된 핵심은 입양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의 입양 여부를 가정법원이 최종 허가하도록 했다. 또 입양을 원하는 생모에게 숙려 기간을 7일간 갖도록 하고, 입양 기관은 양부모에게 아동 양육 교육을 하고, 아동 학대나 성폭력 등 범죄 경력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출산 전부터 생모의 입양 동의서와 친권포기 각서를 받아 입양을 진행시키는 과거신고제 입양의 단점을 보완하고 입양아의 출생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후 우리 사회에서는 입양아의 권리 보호와 무질서한 해외입양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영아 유기를 증가시키고 있고, 입양을 간절히 원하는 양부모들에게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정 「입양특례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개정 입양특례법의 내용

1. 개정이유

아동입양의 절차가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최선의 아동 보호는 출신가정과 출신국가 내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국가 입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법률의 제명을 「입양특례법」으로 변경하고, 국내의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친생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 및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모의 직접 양육을 지원하고, 아동이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나고 나서 입양동의를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양자가 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입양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고, 국내입양의 우선 추진 의무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될 자를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하고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며, 이러한 조치 및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될 자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나) 양친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아동학대, 가정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는 자로 강화하고,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제10조).

(다) 이 법에 따라 입양을 하려는 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도록 함(제11조).

(라)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 이루어지도록 하고, 입양동의를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대가적 급부가 없어야 하는 등 동의의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입양요건을 갖추도록 함(제13조).

(마) 양친, 양자, 검사는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활성화 및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중앙입양원은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제26조).

(사)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자는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제36조제1항·제2항).

(아) 친생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및 양자된 자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상의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36조 제3항).

Ⅲ. 개정입양특례법의 쟁점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입양특례법은 입양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 ① 시군구에 입양 신고만 하면 되던 것을 가정법원 허가제로 전환하고, ② 입양 신청시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며, ③ 출생후 7일이 지나야만 입양동의 효력을 인정(입양숙려)하는 것이 핵심사항이다. 개정 입양특례법은 입양이 인신매매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해외에 고아를 수출하다시피 했던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개정됐다. 가급적 친부모가 양육할 수 있게 하고, 친부모 정보를 기록으로 남겨 입양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친부모를 찾을 수 있게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1. 유아유기 증가는 입양특례법상의 '출생신고 의무화'에 문제 있다는 입장

2012년 8월 시행되고 있는 입양특례법은 입양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입양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입양을 위해서는 친부모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혼모 입장에서 기록에 남을까,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결국 아이를 유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유아유기는 입양특례법과 상관없다는 입장

입양특례법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유아유기가 입양특례법 시행과 상관없다고 주장한다. 이 입장에서는 유아유기는 2010년 프로라이프의사회의 낙태 의사 고발 이후 낙태 시술이 어려워지면서 더 증가했다고 본다. 아동매매나 불법입양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출생신고 절차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입양절차만 완료되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관련 기록이 삭제되는데도, 베이비박스를 찾는 미혼(부모)들이 이 사실은 모른 채 입양특례법 탓만 한다고 지적한다. 일부는 베이비박스가 의도치 않게 영아유기를 조장·방조한다고 비판한다.

3. 소결

개정 입양특례법의 시행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출생신고 의무 조항이다. 법 제11조는 입양신청에 출생신고 서류를 요구하는데, 출산 기록이 남을 것을 우려한 미혼모들이 입양을 기피하고 아이를 유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Ⅳ. 결론

한국의 입양 문제는 미혼모들 인권 문제 즉 미혼모의 사회적 경제적 현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국내의 가정에 입양되는 아동 대다수는 미혼모의 아이들이다. 개정 입양특례법의 논란 문제 해결의 출발은 사회적 편견 속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포기하거나 유기해야만 하는 미혼모의 문제부터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라고 본다.

■ 참고 문헌 ■

[1] 이삼득, 해외 입양과 한국 민족주의, 소나무, 서울, 2008